



SNU EE LIFE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소식지
2011 상반기

151-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Tel : +82-2-880-7241
Fax : +82-2-871-5974
<http://ee.snu.ac.kr>
designed by Junha (학부 07학번 노준하)

contents

<i>college</i>	02 - 03	신임교수인사말
	04 - 05	대학원 연구실 탐방
	06 - 07	학생센터 e생생
<i>event</i>	08	전공하나 준비팀 봉사상
	09	전공하나 졸업예정자와의 만남
	10	전자전
	11	축구대회
<i>people</i>	12	교환학생후기
	13	졸업생과의 만남
	14 - 15	신입생도우미
	16	전공도우미
	17	봉사상 수상자 인터뷰
	18	알프리장학생 및 기자단후기
<i>episode</i>	19	2010년 이모저모

신임교수 인터뷰

정운찬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학사	1990 - 199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석사	1994 - 199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박사	1996 - 1999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특별연구원	1999 - 2001
Research Fellow, ORC, University of Southampton, UK	2001 - 2003
Senior Research Fellow, ORC, University of Southampton, UK	2003 - 2006
Reader, ORC, University of Southampton, UK	2006 - 2010
Associate Editor, Optics Express, The Optical Society	2009 - 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2010 - 현재



하정익 교수

1991 - 199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학사
1995 - 199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석사
1997 - 200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박사
2001 - 2002	일본 Yaskawa Electric사 Engineer
2003 - 2008	(주)삼성전자 책임연구원
2008 - 2009	(주)삼성전자 수석연구원
2009 - 2010	LS메카피온(주) 기술총괄이사(CTO)
2010 - 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부임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교에서 연구와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자 기쁨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학문에의 길을 열어 주신, 지도교수님이셨던 이병호 교수님과 다른 많은 전기공학부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여 년 동안 영국에 있는 University of Southampton에 재직하면서 얻게 되었던 제 경험과 지식들을 이제 돌아와 전기공학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저 자신의 또 다른 배움과 연구의 길을 더욱 펼쳐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이자 기회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기공학부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갈 길과 날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저는 박사학위과정 및 Post-Doc과정 동안은 Nonlinear Optics, Fibre Optics, Holography 및 3D Display 등을 연구했었고, 영국으로 옮긴 이후부터는 High-Power Fibre Laser를 주로 연구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영국에 갔을 때,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막 시작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제 박사학위 주제였던 Nonlinear Optics와 Fibre Optics에 관련된 지식들이 이 High-Power Fibre Laser분야에 대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수행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2003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1-kW Ytterbium-Doped Fibre Laser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많은 선도적인 연구 결과를 내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연구 분야는 기술개발 단계에서 산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실용화 및 산업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레이저들을 이용하여 Bio-Imaging/Sensing, Free-Space/Underwater Ranging, Particle Manipulation/Acceleration 등 많은 응용 연구 분야에 신기술을 제공하고, 또 이와 관련된 융합 연구에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여가 시간이라고 하니 왠지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제 나름대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시간을 만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취미 생활이라 한다면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특별히 축구를 좋아 합니다. 영국에 있었을 때는 축구 시즌이 되면 매주 토요일마다 축구 클럽 활동을 했었습니다. 전기공학부에 부임한 이후에는 자주는 아니지만 공대 교수축구회에 참여하여 기회가 될 때마다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의 매력은 제가 설명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지만,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또한 팀웍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승리’ 라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렇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공동된 목표’ 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에는 주로 책을 읽습니다. 출퇴근길마다 혹은 예기치 못한 비는 시간에는 (급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책을 읽습니다. 서울 시내 모 서점 앞에 써져 있던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물론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책을 통해 얻게 되는 동서고금의 지식은 생활의

활력소가 될뿐 아니라 제 마음과 머릿속을 환기시켜 주고, 또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저에게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보태어 주는 것 같습니다.

전기공학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국에서 귀국한 후 처음 읽게 되었던 책에서 이런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가슴 속에 일만 권의 독서량이 쌓여서 피어나는 문자향(文字香)과 서권기(書卷氣)가 넘쳐야 한다’ 고 선비의 자질을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일만 시간의 법칙’ 이 이미 몇 백년을 거슬러 올라간 그 때에도 있었나 봅니다. 한 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니, 멀리 볼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모두가 성공을 열망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어떻습니까? 알팍한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열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문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전기공학도로서 모름지기 일만볼트의 높은 뜻을 세우 마음을 정하고 일만암페어의 기운찬 노력을 계속해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성공을 넘어 이 나라와 세상을 밝히고 복되게 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임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년 전 희망과 설레던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던 관악에 또 다른 희망과 설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학문으로 인도해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학부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게 될 새로운 학문에 대한 도전과 후학 양성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외 우수기업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대한 감각과 학문에 대한 진지함을 겸비한 학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길을 가기위한 저의 선택을 지지해 준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저는 대학원에서 센서리스 에너지 변환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교류 전동기 구동에 있어 세계 최초로 영속 및 저속 센서리스 운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기술을 졸업 후 로봇, 반도체 장비, 전기자동차,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동력 또는 전기-열 에너지 변환 분야의 제품에 적용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New Material-Based Energy Conversions, Bidirectional Thermal Control, Integrated Machine, Real-Time Energy Network, Smart Grid End User Technology 등의 기초 기술 연구와 신재생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변환 시스템 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스포츠를 많이 좋아해서 예전에는 스노보드, 농구, 축구 등 매우 다양한 취미생활로 여가시간을 보냈습니다만,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지금은 가족들과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귀여운 아들과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놀아주려고 합니다.

전기공학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와 실천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마다 나름의 생각이 있겠지만, 다음의 두 가지만 마음에 둔다면 자아 실현과 인류공헌의 결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Motivation과 Attitude입니다. Motivation은 목표 설정에 관한 것으로 현재의 본인의 상태나 수준보다 무엇인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다는 동기부여 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Attitude는 실천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목표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시키며,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은 느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매우 좋은 환경과 앞선 상태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태도는 여러분이 흑지 금 겪고 있을지 모를 어려움이나 힘든 문제들은 쉽게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대학원 연구실 탐방

Biophotonics and Nano Engineering Lab.



BiNEL

본 연구실은 2006년 8월에 제가 서울대학교에 오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BiNEL(Biophotonics and Nano Engineering Lab)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Nano Process(나노 공정), Microfluidics(미세유체학), Photonics(광학) 세 가지 분야에서 근간기술을 갖고 그것을 믹스하여 융합연구를 하고 있으며, 한정적인 주제를 연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실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구소에서는 연구자마다 한가지의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데, 이는 지도교수와의 소통이 간편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연구실에서는 대부분의 연구를 일대일이 아닌 팀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프로젝트가 일정규모에 오르기까지 역할분배가 어렵고 팀원들의 노하우가 미흡하여 어려움이 많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팀원 간에 호흡을 맞춰나가다 보면 개인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보다 더욱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펼쳐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가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면서 혼자서 이뤄낼 수 있는 연구는 줄어들고 다른 연구자와 조화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 집단에서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활발하게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프로젝트는 물론 연구자 개인에게도 유익하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실에서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보고할 때 팀원들 모두에게 보고서를 발송하는 것은 물론 보고받은 내용에 자신의 견해나 조언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복리후생에 큰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예컨대, 연구원들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만큼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휴가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하거나 혹은 당일 아침이라도 이메일을 통해 요청하지만 하면 특정한 불허사유가 없는 경우 대부분 허가됩니다. 기업이 아닌 학교 내의 연구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는 물론 학생 자신도 지금의 기간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분야 선택 계기

시대가 변하면서 전문가에 대한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면 지금은 데이터베이스의 확대에 의해 단순한 지식보다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조성(Creativity)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창조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주요 기술을 다른 논제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여 학제 간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설립시 Nano Process(나노 공정), Microfluidics(미세유체학), Photonics(광학) 세 가지 분야에서 근간기술을 갖고 그것을 믹스하여 실제 연구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포인트들이 연결되어 디스플레이, 바이오칩, 에너지원 관련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

연구는 크게 디스플레이, 바이오칩, 에너지원 관련 연구로 나뉘며, 모두 Smart Scalable System이라는 컨셉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 때 마이크로나 콜라주 하듯이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조립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디스플레이를 만든다고 할 때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한 개를 제작한다면 가격도 비싸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작은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이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조립하게 되면 경제적인 것은 물론 제작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조립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이즈에 대한 제한 없이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Smart Scalable System은 바이오칩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바이오칩에는 다양한 것을 올려야 하는데, 예를 들어 백만 가지 다른 물질을 올리는 경우 그것들을 한 번에 Patterning 하는 것이 아닌 작은 Particle 형태로 따로 만든 후 조립하여 칩 형태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진로고민 학생 조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럴 때 반드시 어려운 것을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쉬운 길을 선택해서 성공리에 마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능력이 뛰어났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프로젝트에 80%의 능력만 발휘하여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프로젝트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스스로 얻는 것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온 힘을 기울인 것도 아니었기에 가슴 시린 성취감을 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80%의 능력만 발휘한 쉬운 프로젝트에 실패했다고 가정한다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전력을 쏟지 않은 부분을 반성하면 다행이겠지만 자칫 나태함에 빠져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120%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성공했을 때 느낄 성취감은 대단할 것입니다. 심지어 실패하더라도 가능성을 보고 더 자신감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성취감을 맛본 사람이라면 그 다음 프로젝트부터는 자연스럽게 어려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고된 경험 끝에 배우는 것들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힘들겠지만 해볼 만한 일’에 많이 도전하여 스스로 성장하고 배워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융합연구 분야에 투신하려면 매 순간 이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설사 지금 당장 모르는 분야일지라도 ‘배워서 하면 된다.’라는 자세로 연구에 임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연구자로서 훌륭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권성훈 교수



정수은
박사과정 08학번



이승훈
석사과정 08학번



석사과정 10학번
김지운

연구실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권성훈 교수님께서 처음 부임하실 때 저는 대학원 신입생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원 합격생 전원에게 교수님께서 직접 소개글과 함께 앞으로 연구할 분야에 대해 설명하는 메일을 보내셨었습니다. 원래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지만, 젊은 교수님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보고 배우기 위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연구실 생활에서 힘든 점은?

신생 연구실이라 노하우가 있는 ‘고참’ 선배들이 없어 모든 것을 바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 번의 실험을 하기 위해 다른 연구실을 전전하며 실험 기기를 빌려서 사용하고 도움을 받아 빈 실험실에 기기를 하나씩 채워 넣어야 했으니까요. 여러 학생들의 노고로 지금의 실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진로계획은?

전기공학부가 아닌 다른 연구 분야에서 박사 후 연구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연구한 분야를 접목시켜 볼 생각입니다. 혹은 다른 분야에 대해 더 배운 후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보다 다양한 연구를 해 보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한 마디

똑같은 일을 남들보다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해서 행복한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본인의 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하면 된다’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학부 4학년 때의 여름 졸업프로젝트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교수님의 전자장 수업을 들으면서 연구실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저보다 한 학기 먼저 들어간 친구의 강력한 추천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험실 생활은 단체 생활이다 보니 개인 생활에서 제약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연구도 혼자가 아닌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서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구실에서는 석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유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 년 간은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후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라면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도전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권성훈 교수님께서도 자주 언급하시는 부분이지만 리스크가 많을수록 경쟁이 덜 치열하며 그만큼 그 안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경험보다 더 큰 배움은 없다고 생각하며 하고 싶은 것을 우선 실행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Do it, measure it and build upon it!

고등학교 때 R&E(Research & Educa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 교수님과 연구원님의 도움으로 간단한 연구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대학교에 진학해서 일찍부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연구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험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연구하는 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하고 자신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의 선배들이나 교수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한 어려움도 연구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대학원에서 석사생활을 마치고 박사과정은 미국으로 유학을 갈 생각입니다. 현재 권성훈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분야들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신생 학문에 속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 분야의 태동과 발전에 대한 학부와 석사 때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학생센터 e생생



3 09호를 새롭게 단장하여 문을 연 전기공학부 학생센터 e생생이 개소식을 한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학생센터를 방문한 학생들도 많지만, 뉴스레터를 통해서 더 많은 전기공학부 학우들에게 센터에 대해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대학이라는 곳에 와서 새로운 환경과 생활에 적응하는 일은 설레고 기대되는 일인 동시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고 싶던 공부와 취미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반면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로 인해 당황하기도 합니다. 대학생으로서 이제 어른이니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또는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혼자 끙끙 앓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1학년 때부터 크게 다가오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압박, 공부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인간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멋지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등 고민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능력 있는 학생들이 이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보다 행복하게,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학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줄 수는 없을까? 학생센터 e생생은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센터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학생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끼리 서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신입생 도우미와 전공과목 학습 도우미 제도가 있습니다. 신입생 도우미는 지도교수 반별로 1년 동안 학교생활에 적응을 마친 2학년 선배들이 도우미로서 신입생들의 수강신청과 대학생활을 도와줍니다. 전공과목 학습 도우미는 전공과목에서 어려운 부분을 1:1로 가르쳐주면서 학습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앞으로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여럿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교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수강신청지도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을 적절히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 수강신청 전에 지도교수님의 지도와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센터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성과와 대학생활을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 하나, 야심차게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학생 여러분들의 진로 결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보면 실제로 사회에 나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일회성 만남에 그치는 일이 잦고 그러한 만남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문 선배를 멘토로 모시고 진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e생생에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멘토를 자원해주신 덕분에 곧 멘티 신청을 받아 멘토링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로별 모임입니다. 전기공학부에서 공부를 하면서 결정하게 되는 진로는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 취업준비, 또는 고시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 준비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먼저 경험한 자로서의 조언 등을 활발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 전기공학부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eei에 국가고시와 유학 게시판이 개설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 게시판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한편, 오프라인 모임도 만들 예정입니다.

학생센터에서는 심리검사와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는 성격과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도구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외부에서는 유료인 검사들이 무료로 제공되니 학생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심리검사 결과에 대해 해석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하니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심리상담은 개인적인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며 해결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상담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존재하지만, 실제 학생들이 상담하는 주제는 다양합니다. 고치기 어려운 습관, 여자친구나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 등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전문상담가가 늘 학생센터에 상주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학생센터에서는 지난 학기 말에 열렸던 영화감상회를 매 학기 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에 대한 특강도 매 학기마다 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언제든지 309호 학생센터 e생생으로 오시면 됩니다. 2011년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생센터가 되겠습니다.

인터뷰 / 김수지, 김영신

전공학부 하나되는 나들이 전공하나



정찬우
학부08학번

2010학년도 전기C반 과장을 맡음과 동시에 이번 전기공학부 전/공/하/나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전공하나의 준비를 맡으면서 다른 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준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그 부담감도 컸지만 우리 학부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행사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준비팀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전공하나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학부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파이팅!!!!



김호연
학부08학번

상을 받게 되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보다도 전공하나를 위해 노력한 우리 09, 10학번 후배들에게 이 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4학년이 되어 더 이상 준비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후배들이 잘해주어서 점점 더 나아지는 전공하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전공하나 준비팀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전공하나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같이 즐거운 전기공학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용현
학부08학번

새내기 때와 비교해도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새 이번 전공하나 준비팀의 최고학번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공 하나는 생각 외의 약조건들 속에서도 잘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준비팀과 준비위원장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었겠지요. 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지만 봉사상을 받지 못한 분들의 숨겨진 노고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지원
학부09학번

전공하나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만큼 많은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봉사상까지 받게 되니 그 즐거움이 두 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전공하나에서 무대를 꾸미고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 준비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즐겨왔던 행사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배님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상우
학부09학번

작년 전공하나에서 저는 준비팀원이 아닌 신입생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 때의 준비팀 친구들이 전공하나를 재밌게 즐기는 것을 보고 내년엔 전공하나에 참석하게 되면 나도 준비팀에 지원하겠다고 생각했었고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일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끝나고 나니 전부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년에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또 다시 준비팀원으로 참가하고 싶습니다.



이규섭
학부09학번

먼저 이런 멋진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전공하나 준비팀에서 일하면서 다른 전기공학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앞으로 이런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기공학부의 일원으로서 전기공학부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춘래
학부09학번

이번 학기에 전공하나 준비팀으로 활동했습니다. 특별한 동기 없이 시작해서인지, 많은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준비할 당시에는 꽤나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기공학부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의 손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나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준희
학부09학번

지난 학기부터 롤루반의 반대표를 맡으면서도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저에게 이번 전공 하나는 반대표라는 이름으로 롤루반과 전기공학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방학 중에 준비모임을 가지며 학기 중에도 항상 가던 301동을 방학 중에 또 가야하라며 속으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지만 행사가 끝나고 난 지금은 그 시간들이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김영준
학부10학번

새내기로서 전기공학부에 진입조차 하지 않고 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부에 소속되어있던 저에게 전기공학부는 쉽게 와 닿지 않는 낯선 존재였지만, 이번 전공하나를 통해서 전기공학부가 어떤 곳인지 어렵듯이 알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준비팀원으로서 행사에 기여할 수 있어서 좋았고, 여러 선배님들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사의 장을 마련해준 전기공학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EVENT

졸업예정자와의 만남

이태섭

학부 07학번/대학원진학



2007년 전기컴퓨터공학부 학생으로 입학하여 2011년 현재 졸업을 앞둔 저에게 아직도 전기공학부 졸업생이라는 신분은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지고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 새터에 가서 수년 간 함께할 동기들을 만났던 날이 었그제 같은데, 이제는 저와 동기들이 어느덧 졸업을 하고 각자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정해서 새로운 출발해야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이 순간을 맞이하니 지난 4년간 학교에서 보낸 시간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은 끊임없는 고민과 방향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버겁게 느껴 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주위로 눈을 돌려서 자신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을 보면 새로운 힘을 얻고 선택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전공하나에서의 졸업예정자와의 만남은 저에게 있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위를 돌아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물론 이미 진로를 선택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 기회였지만 그래도 주위의 친구들은 어떤 다른 길을 선택했으며 교수님들께서 다른 여러 진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바를 들을 수 있었기에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 글마당에 올라온 글들을 다른 진로를 선택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안타까웠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 졸업생들과의 대화는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와 함께 공부했던 동문들이 선택한 길을 함께 공유하고 축복해주는 시간이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학생들 이외에 다른 길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지 못했다는 점과 평소와 같은 반이 아니어서 인사를 나누어 보지 못했던 동기 그리고 교수님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전공하나에서는 졸업예정자와의 만남을 더 활성화 시켜서 많은 학우들이 졸업하기 전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기공학부생들이 모두 각자의 길을 멋지게 걸어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서유민

학부 07학번/대학원진학



저는 지난 전공하나 첫째 날 밤에 있었던 ‘졸업 예정자와 교수와의 만남’에 참여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전공하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일정을 잡아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만, 졸업 예정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아 이러한 형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뀐 후 처음 실행해서인지 이번 프로그램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상담을 위해 직접 찾아뵙지 않는 이상 교수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졸업 후에 교수님과 따로 만날 기회는 더욱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마련해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전공하나에서처럼 둘러앉아 학생들이 한명씩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만으로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전 프로그램이었던 ‘학부생과 교수님과의 대화’ 시간이 지연되어 늦게 합류해서 그런지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마디씩 하는 순서가 끝나면 함께 앉아계신 교수님들, 다른 졸업 예정자들과 대화의 시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 말고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끝이 났을 때 조금 아쉬웠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고 회사에 취직하거나 전기과 이외의 다른 진로를 생각한다면, 한 시간 정도의 짧은 행사로 끝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 좋다는 학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공하나에 참여하는 졸업예정자들은 대부분 전기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입니다. 전공하나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만들더라도 더 편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학생들한테는 졸업 전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종현

학부 07학번/대학원진학



2007년 봄에 입학해서 2011년 겨울에 졸업하기까지, 4년 동안 전기공학부는 소중한 보금자리 같은 곳이었습니다. 1학년 시절에는 산꼭대기에 박혀있는 301동 때문에 다른 과와 비교당하며 많은 설움을 겪었지만, 뒤돌아보면 전기공학부만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신식 설비들도 그렇지만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매 학기, 매 방학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학부 시설이었습니다. 입학한 뒤로 전기공학부에서 시행한 학생생활관련 사업들 중 굵직한 것만 적어보아도 모렘 바닥 수리작업, 과방, 해동 공사, 수면실 공사, e학생 학생센터 설립 등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학생회가 없어서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었지만, 활발한 온라인 토론을 이용하여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전기공학부에서의 두 번째 삶을 시작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발전하는 학생복지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쾌적한 301동 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읽어주는 로봇

학부 08학번 이윤택, 김영준, 하제욱
Team Contact

저희 팀의 작품제목은 '책 읽어주는 로봇'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들에 의존하여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책은 시각 편향적인 정보매체이므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자동으로 책을 넘겨주고 읽어주는 로봇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원리는 일단 책을 로봇 위에 놓은 후 PC를 통해 명령을 내려주면 로봇이 자동으로 책을 넘겨주고 적절한 위치에 PC와 연결된 캠을 이동시킨 후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 캠을 이용해 책을 촬영한 후, 촬영한 책의 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문서 변환 코드를 이용해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고,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읽어줍니다. 이 모든 동작은 MFC를 이용해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음성합성 프로그램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이 불가능 했기에 Balabolka 라는 프리웨어를 이용하였습니다. 로봇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잘 작동할 것이라 생각하고 만든 회로는 Noise와 Disturbance, 부품 고장 때문에 심각한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끊임없는 유지보수 작업과 더불어 성능 개선을 위한 추가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로봇이 완성되어 제대로 작동할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자전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로 작품을 제작하면서, 수업시간에 배웠던 이론 이외의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에서의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올해 이런 상을 받게 된 것은 모두 이 작품을 위해 고생하고 노력한 팀원들과, 작년에 고생하며 기반을 쌓아둔 친구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부터 하제욱, 이윤택, 박재범(기계과), 김영준 학생



시로

학부 08학번 오윤선
Sigma Intelligence



이번 전자전은 수상을 한 것도 기쁘지만 작품을 만들면서 배운 점이 많았기에 더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 전기공학부 동아리 Sigma 활동을 하면서 전자전에 참가했었는데, 1학년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해서 선배님들께서 분배해주신 일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일을 소화해내는 것은 어려웠어도 작품을 어떻게 진행시킬지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팀원 15명 중 10명이 신입생이어서 일을 나누는 것도, 진행 시키는 것도 어느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번 Sigma에서 만든 작품은 'Head & Eye Tracking'을 이용한 빠른 조준을 통하여 원격 조종으로도 직접 사람이 쓰는 것만큼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는 로봇이었는데 카메라, 자이로 센서, Zigbee, 블루투스, DC 모터 등 다양한 하드웨어와 AVR코딩, Open CV를 활용한 Visual Studio 코딩 외에 다양한 부분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막막했지만, 신입생들을 가르쳐준다고보다는 같이 배워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 위주로 진행했고, 그래서인지 모두들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주었습니다. 비록 하나하나 배워가야 했지만 서로 가르쳐주면서 일을 진행하다보니 점점 작품이 완성되어갔고 그에 따른 만족감도 커졌습니다. 물론 마냥 즐거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로의 작동이 불안정했고 블루투스로 들어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로 하나하나 찍어 무슨 글자인지 해독하며 같은 문제로 며칠씩 헤매다 보면 지치기도 했지만, 한가지 뿌듯했던 것은 1학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조금씩이나마 이해하고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자전은 정말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Guardian Robot System

학부 04학번 유승일
Cyber Physical System



FC Lullu

축구대회 우승팀



기존의 물체 추적 알고리즘이 크기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곤란했지만 교수님께서 좋은 해결책을 알려주셔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학부 때 배운 다양한 지식들이 참으로 쓸모가 많다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다양한 연습문제들을 풀면서 배웠던 선배님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실제 제품 제작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후배님들에게도 공학적 지식을 활용한 실제 작품을 만들어보고, 학부 때 배운 것을 총망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전자전에 참여할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FC Lullu는 2003년 전기공학부 룰루반의 소모임에서 시작되어 현재 전기공학부의 유일한 공식 축구동아리로서 전기공학부 학장배 축구대회 3년 연속 우승을 비롯하여 각종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입니다. 현재는 선수의 대부분이 룰루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기공학부 내 다른 반 혹은 다른 과 학생들도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희 팀이 2010년 전기공학부 학장배 축구대회를 우승하면서 3년 연속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올해 초부터 연습도 자주하고 다른 팀과 연습경기도 자주 가졌는데, 연습하는 동안에는 힘들었지만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우승은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축구에 대한 열정만으로 대회에 참여해 준 팀원들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전기공학부 학장배 축구대회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몇몇 경기의 일정이 경기 하루 전에 정해지고 또한 심판 수가 부족하여 경기 진행이 수월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다음 대회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더 즐거운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대회



인터뷰 / 김수지, 김영신

교환학생후기 07학번 김예린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김예린 학생 (왼쪽)

Singapore

아시아 지역의 한류 열풍으로 싱가포르 사람들의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현지 친구들을 쉽게 사귄 수 있는데, 수업 시간 외에는 이 친구들과 함께 맛집 탐방, 쇼핑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과 주말 등을 이용하여 싱가포르는 물론 말레이시아, 태국 등을 함께 여행하기도 하였는데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행할 수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지냈던 싱가포르에 대해 그리운 것 중 하나는 음식입니다. 싱가포르의 전체적인 물가는 한국과 거의 비슷하지만, 식사에 드는 비용은 훨씬 저렴합니다. 한화 3천원 정도면 맛있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awker Center라고 불리는 푸드 코트가 거리마다 많이 있고 싱가포르 현지인들 대부분이 이런 푸드 코트에서 식사를 합니다. 다양한 인종이 섞인 나라답게 싱가포르 음식, 중국 음식, 인도 음식, 말레이 음식, 또 한국 음식들의 고유한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4개의 Official Language(English, Chinese, Tamil, Malay)를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특히 SMU 학생들은 수업 및 모든 활동에서 영어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학생들의 발표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영어 발표를 할 기회도 많이 있었고, 이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있다면?

싱가포르에서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Temasek 장학생 친구들과 함께한 추억입니다. SMU 교환학생은 Temasek Foundation-SMU LEARN Scholarship에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매 학기 1명 정도 선발되고 있습니다. Temasek 장학금을 받는 경우 Princep Hostel에서 머물 수 있게 되는데, Princep 기숙사는 SMU의 Full-time International Student들과 교환학생 중 12명 정도의 Temasek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온 International Student들 및 Temasek 장학생들과 많이 어울리게 됩니다. 기숙사 안에서도 Toga(그리스 전통 의상) Party, Holy Party(잉크를 던지는 인도의 Festival) 등 기숙생들이 중심이 된 다양한 이벤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학기가 지나면 기숙생들과 굉장히 친해집니다.

교환학생 경험이 주는 의미는?

SMU에 있는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전공학을 전공하면서 경영 학교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나?”는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4개월은 저의 꿈인 Entrepreneur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 중 전공 실력을 확실히 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직접 경영학교에서 수업과 MIT Enterprise Forum 등 여러 경영 세미나에 참여하며 저의 시야를 한층 넓히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졸업생과의 만남 01학번 최명진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1학번 최명진입니다. 2005년도에 MIT 전기컴퓨터공학부로 유학을 왔고 2010년 12월 졸업 예정입니다. 연구 분야는 확률 모델링과 Machine Learning이고 최근에는 컴퓨터 비전 분야의 Object Recognition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당시만 해도 유학 가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저도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했었지요.

유학오기를 잘했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대학원의 분위기가 긍정적입니다. 연구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러한 열정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으며, 졸업하고 나서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지요. 연구실마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휴가를 가거나, 여름에 인턴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학생의 의견이 대체로 존중되는 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거나 함께 논문을 쓰는 등 좋은 기회들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고, 졸업하고 나서도 대학교수가 되거나 같은 분야의 회사에 취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컨설팅, 창업 등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언어 문제가 가장 크겠지요. 영어실력은 시간이 가고 노력을 하면 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언어 능력 자체가 뛰어나다. 논문을 쓸 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 정말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어려운 개념을 수학공식 하나 쓰지 않고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익히는 것이 영어 배우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네요. 그 외에 사소한 보이지만 분석집, 편의점, 배달시켜 먹는 야식, 맛있는 한국 음식점, 깨끗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등등이 없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지요. (웃음)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남들이 다 가니까 당연히 유학을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너무 좋고 연구를 계속할 생각도 별로 없는데 단지 유명한 대학의 학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학을 오려 한다면, 정말 그것 때문에 5~8년에 이르는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래요. 또 그런 생각으로 유학생활을 시작하면 즐거운 대학원 생활을 보내기도 힘들지요. 반면 자신이 관심 있는 연구분야가 한국에서는 그다지 발전하지 않은 분야이거나 특정 분야에 관계 없이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이만큼 행복한 시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유학을 와서, 그것도 고년차가 된 후에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찍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같은 선택을 내리게 될지라도 그 길을 걷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인터뷰 / 김수지, 노준하



신입생 도우미

학부09학번 김상철

학부 게시판에서 신입생도우미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평소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교류를 늘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강신청 지도를 보조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였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학생들과 식사도 하고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복지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들께서 그러한 노력에 힘을 보태려 애썼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러한 노력에 걸맞는 저희들이 우왕좌왕하거나 아직은 시행 첫 해라서 그런지 저희들이 우왕좌왕하거나 준비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신입생 도우미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전기공학부 고유의 훌륭한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부09학번 김희우

이번 신입생 도우미 활동을 돌아보면 좋았던 점도 있었고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수님과 10학번 후배들을 새로 알게 된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차상균 교수님과 다른 반 후배들을 함께 만날 기회가 꽤 있었는데, 인원이 많은 전기공학부 특성상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겨우 한 학년 선배이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올해는 신입생 도우미가 2학기부터 시작되어서 신입생들이 막상 도우미가 필요한 1학기 직전에 도움을 줄 수 없었으며 학생들과도 친해질 시간이 비교적 적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도우미 한 사람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다보니 학생들 전부를 관리해주기가 힘들고 시간 맞춰서 자주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겨울방학부터 신입생 도우미가 시작 된다고 하니, 신입생들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우미들도 신입생들과 더 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용권 교수님, 최명섭, 성영규, 박수정, 김희우, 전병준, 이정용, 김상철, 손정환 학생, 설승기 교수님

PEOPLE

학부09학번 박수정

문득 제가 신입생이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학부 사무실도 멀리 있고 교수님들도 멀리 계신데 1학년 생활은 산 아래쪽에서 하다 보니 거리상의 문제로 학부와 가까워지지 못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조금이나마 신입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신입생도우미를 신청하게 되었고, 한 학기동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 때부터 활동한지라 어색한 점도 많았고 친해지는 것도 어려웠지만 교수님들도 뵈고 여러 학생들과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람도 컸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큼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어서 신입생들이 좀 더 우리 전기공학부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09학번 성영규

올해 10학번을 대상으로 한 신입생 도우미를 맡으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선후배 간에 갖기 힘들었던 유대감과 친밀감을 이번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운 점이나 고민을 나누고 수업과 학점에 관하여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갖으며, 신입생들이 전기공학부 학생으로서 적응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신입생도우미라는 제도를 유지해 나간다면 학부생들 사이에, 특히 선후배 간의 친목도모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입생들이 도우미의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해 많은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해는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라서인지 간혹 도우미 선배와의 만남을 꺼려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도우미의 역할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실제 도우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더 학생들에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09학번 손정환

신입생도우미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신입생도우미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신입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돕는 것이 도우미의 역할입니다. 저 스스로가 신입생이었던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넓은 캠퍼스에서 강의실 찾아가기, 실험과목 레포트 작성하기, 동아리 활동과 학업 간의 균형 맞추기 등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는 선배가 있다면 학교생활이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신입생도우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신입생의 관점에서 신입생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주고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년 초부터 시작한 활동이 아니었기에 신입생으로부터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학생들을 위하고 배려하는 학부의 노력과 도우미의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신입생도우미 2기가 선발됩니다. 1기를 뛰어넘는 노력과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기공학부 화이팅!

학부09학번 이정용

신입생도우미 활동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신입생도우미를 함으로써 제가 신입생 때 겪었던 어려움을 후배들은 겪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었으며 신입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과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 지 잘 모르는 신입생들에게 이런저런 지도를 해주면서 2학년, 3학년에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학년이 되어도 과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신입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이와 같은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09학번 전병준

2010년 여름방학이 막 지났을 무렵, 신입생 도우미를 모집한다는 말에 신입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드문 기회라는 생각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새로 시행된 수강신청승인서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임의 퀘스트를 완료한다는 기분으로 간신히 일을 끝내고서 개학 후 신입생들과 함께 밥을 먹으려 했지만 다들 답장도 없고 연락도 해주지 않아 함께 모으기가 힘들었습니다. 비록 얼굴과 이름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이상은 만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하고나니 뿌듯함보다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었다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가까워질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도우미 활동은 끝났지만 후배들과 지낼 날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 앞으로도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09학번 최명섭

처음엔 새로 생긴 제도인데다 같은 학부 후배들과 친해질 수 기회이기도 하고 부담 없이 같이 밥도 먹으면서 여러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원했던 신입생도우미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신입생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고, 신입생도우미들에게도 이 제도의 중요성이 잘 느껴지지 않았던 점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새내기들과 도우미들이 수업을 듣는 장소가 너무 달라서 만날 약속을 잡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새내기들에게 있어서 도우미들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귀찮은 선배처럼 느껴질 여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일인 만큼 단점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동안의 도우미 활동 끝에 적어도 제 담당 학생들 중 몇 명만이라도 저를 기억해준다면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았던 도우미 활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신입생들이 전기공학부를 친근하게 느꼈으면...
신입생도우미 제도가 학기별로 시행되었으면!
담당신입생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신입생도우미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인터뷰 / 김수지, 김영진

□ 전공도우미 인터뷰

학기 초 전기공학부 게시판에서 전공도우미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전공도우미는 2, 3학년들의 주 전공 과목마다 있는 도우미로서 학생들의 학습을 과외선생님과 같은 개념으로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저는 전자회로2 과목의 전공도우미가 되어 한 학기동안 도우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회로2 수업을 들은 지 1년이 넘었고, 그 후 전자회로와 관련된 전공수업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전공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도우미 시간 전에 항상 따로 공부해가며 전공도우미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질적인 측면이나 제 자신의 공부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08, 09학번들이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08학번들이 많이 도우미를 찾아올 줄 알았지만 도우미를 찾아온 분들은 대부분 복학하여 수업을 듣는 학우들이었습니다. 08학번들은 서로간의 교류가 많아 수업을 들으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복학생들은 독학의 부담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전공도우미가 전공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도우미를 하면서 감사의 의미로 물이나 커피, 음료수 등을 사 오시는 분들과 저번에 기출문제풀이 덕분에 시험을 잘 본 것 같다고 말씀해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참 보람있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부 마지막 학기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길태호
학부07학번

전자장은 많은 분들이 어려운 과목으로 생각하시고, 실제로도 어려운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평소 전자기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인터넷 물리 동호회 등에서 활동하며 전자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다양한 팁을 많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자장 수업을 비교적 수월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 전자장 과목을 다 듣고 난 후 제가 알게 된 것들이 이대로 묻히기에는 아깝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팁들을 전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여 도우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저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로 수고하신 직원 분들과 부족한 제게 질문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메일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전자장 전공도우미로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또한 다른 과목들을 들으면서 여러 도우미 제도를 이용해보니 정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교님들이나 교수님들께 선풍 묻기 어려운 질문들이나 상담도 도우미들에게는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생들에게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전공도우미 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방문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승원
학부08학번



I WANT YOU FOR SNU EE

□ 봉사상 수상자 인터뷰

학부07학번 서지훈

안녕하세요, 08학번 서지훈입니다. 전산실 업무를 위해 이메일을 쓸 때마다 '전기공학부 전산실 서지훈입니다.'라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쓰려니 약간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전산실의 대표로 활동해 왔고, 이전 학기부터는 전산실 관리자 중 가장 경력이 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전산실에서 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인정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학부에서 주시는 봉사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1학년 때 전산실에서 일하시는 반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가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된 후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 전산실에 제 자리가 생겼던 때가 엇그제처럼 느껴지는데, 세월의 흐름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봉사상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eei 클라당'에 '전산실 관리자는 갈 때마다 불친절하다'는 답글이 달렸었는데, 아마도 저를 두고 쓴 글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에 그 이후로는 많은 반성을 하였고 학생들을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실 관리자에 대한 좋지 않은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전산실 구성원이 R반에 편중되어 있어 관리자로서 많이 걱정됩니다. 앞으로 R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의 09, 10학번들도 전산실 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받들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는 서지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세요!



인터뷰 / 김수지, 김영진

알프리장학생

알프리 장학회는 2010년 서울대 전기동문모임에서 만든 장학회입니다. 알프리 장학제도는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로서 우리나라 산업기술과 벤처창업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부생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1년에 500만원(학기당 250만원씩)이 지급되며, 2010년 9월 제1회 장학생으로 3학년 김승완, 오윤선 학생이 선정되었습니다.

알프리장학금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알프리장학금은 전기동문 중에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뜻을 모아 벤처창업에 관심이 많은 후배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장학금입니다. 우연히 eei 게시판에서 장학생 선정 공지를 보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의 취지가 독특한 만큼 학점보다는 장학금취지에 맞는 활동경험이 장학생 선발에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와 경력사항 등으로 1차 서류선발이 이루어지며, 교수님 세 분과의 면접을 통해서 2차 선발과정이 진행됩니다. 장학금은 한 학기당 250만원으로 두 학기에 걸쳐 나누어 지급됩니다. 저의 경우 2학년 때 벤처창업동아리(SNUSV)에 들어가 1년 남짓 활동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벤처창업의 스타팅 멤버로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전기공학부 선배님께서 창업하신 회사에서 기획인턴을 하는 등 많은 관련 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알프리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업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벤처에 뜻을 두고 있는 전기공학부 학생들이 있다면 꼭 지원해보기를 권합니다. 비단 장학금뿐 아니라 장학생 선발과정에서의 일련의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게 좋은 기회를 주신 알프리장학회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승완
학부08학번

기자단후기

김수지
학부07학번

안녕하세요! 전기공학부 홍보도우미 김수지입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번 학기에도 홍보도우미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이제 졸업할 하게 되어 더이상 할 수가 없어 아쉽습니다. 홍보도우미를 하면서 전기공학부에 예전보다 다양한 행사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학부에 애정을 가지고 여러 행사에 참여하여 더욱 활기찬 전기공학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월에 새로운 홍보도우미들을 선발할텐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여러모로 수고해주신 학부 사무실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노준하
학부07학번

안녕하세요! 전기공학부 홍보도우미 노준하입니다. 이번 학기가 도우미 활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전기공학부의 여러 행사를 알리는 보람있는 활동이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학부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부에 여러 행사가 생기고 학생센터와 같은 휴식공간도 마련되어서 무척이나 뿌려왔습니다. 이번엔 전기공학부 뉴스레터의 디자인을 담당하면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더 잘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새로 추진되는 학부의 행사나 제도는 아직 홍보가 부족한데 이 뉴스레터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새로 선발될 홍보도우미 분들께서 더 맛있는 뉴스레터를 제작해서 전기공학부의 좋은 전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영신
학부09학번

안녕하세요! 전기공학부 홍보도우미 김영신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홍보도우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몰랐던 전기공학부 내의 많은 행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식지를 만드는 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학부 사무실 선생님들과 갑작스러운 연락에도 흔쾌히 인터뷰와 원고를 수락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모두 따뜻한 겨울,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이모저모

